

광주시 스마트시티 구축 마스터플랜 착수

5일 용역 수립 착수 보고회 추진 전략 등 내년 7월 완료

광주시는 5일 오후 4시 시청 2층 무등홀에서 '2030 광주 스마트시티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스마트시티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주요 도시의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화한 도시를 말한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영상회의 등 첨단 IT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교통, 주거, 쓰레기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편의를 증진시켜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용역 수행업체인 (주)대영유비텍이 용역 추진 방향을 설명한 후 참석자들과 과업 수행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당부사항을 듣는 자리다. '2030 광주 스마트시티 구축 마스터플

랜 수립 용역'은 각종 도시화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 시티 구현 추진전략 수립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내년 7월 완료될 예정이다. 연구는 ▲지역 내 스마트시티 서비스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광주의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시티 구축방향 및 비전과 전략 수립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방안 ▲스마트 시티 서비스 모델 도출 및 구현 ▲스마트도시 기술을 활용한 지역산업의 육성 및 발전

방안 수립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는 용역 추진 과정에서 분야별 인터뷰, 실무TF팀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용역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 스마트시티는 기술은 물론, 정책적인 방향에서 도시의 확장성과 광주의 역사, 문화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 사람 중심 도시로 구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필리핀 다문화가정 49명 광주시·한전 모국방문 지원

광주시와 한전이 필리핀 출신 다문화가정 이주여성과 청소년 49명의 모국방문을 지원한다. 광주시가 한전과 협력해 추진하는 다문화가족 필리핀 모국방문사업으로, 다문화가정 100만명 시대를 맞아 결혼이주여성과 자녀의 고국방문에 그치지 않고 국제청소년 교류, 대학교 탐방 등을 내용으로 추진한다. 이번 모국 방문은 지난 8월 다문화가족 50명 중국방문에 이은 두 번째 지원으로, 12월 2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모국을 찾을 예정이다. 양 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힘든 가정환경에도 열심히 생활하는 광주·전남 거주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를 선정하고, 지난 17일 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모국방문 시 유의사항 등을 사전 교육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도약과 성장, 우리가 함께 만들 지역맞춤형사회서비스』
18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보고회
 ■ 일시 : 2018. 11. 30(금) 14:00 ■ 장소 :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 주관 : 광주복지재단 ■ 주최 : 광주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보고회 광주복지재단은 지난달 30일 오후 라마다 호텔에서 '도약과 성장, 우리가 함께 만들 지역맞춤형사회서비스'라는 주제로 2018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광주 5개 자치구와 제공기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1년 성과를 보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떡·어묵 등 다소비식품 연말연시 안전·위생 점검

광주시는 빵·떡·케이크류, 어묵 등 연말연시 다소비식품을 취급하는 식품위생업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생점검과 수거·검사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2월 3일부터 21일까지 관계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5개반 25명의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점검대상은 성수식품 제조업 39곳, 대형마트 22곳, 제과점 34곳, 단란주점 50곳, 일식·중식음식점 116곳 등 261곳이다. 합동점검반은 ▲정결관리 ▲자기품질검사 이행 ▲생산 및 작업일지, 거래기록부 및 원료수불 관련 서류 비치 ▲냉동·냉장제품의 보관 기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남구 대지마을 광주~강진 고속도로 집단민원 해소

국민권익위 주도 조정회의 통로박스·간선도로 등 설치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로 조망권 훼손, 통풍 장애 등 피해를 우려하던 광주광역시 남구 대지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된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1월 30일 광주시 남구 대촌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신청인 대표와 한국도로공사, 광주광역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대지마을 주민 196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수립하면서 고속도로가 대지마을을 근접해 통과하도록 설계했다. 광주 대지마을 등 인근 주민들은 마을

앞에 약 10m 높이의 흙쌓기 공사가 진행되면 조망권이 저하되고 소음·먼지 등으로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고 마을 앞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하는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해당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할 경우 사업비가 과도하게 소요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지마을 주민 196명은 올해 2월말 국민권익위에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30일 오후 광주시 대촌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신청인 대표 등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광주광역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조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과 총사업비 변경협의가 완료되면 흙쌓기 구간 중 마을 입구 부분을 교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교량 밑에 체육시설(게이트볼장 또는 족구장)을, 흙쌓기 구간 밑으로는 농로를 연결하는 통로박스를 설치하고 고속도로 주변에서 농경지 진입이 가능하도록 부체도로(기존도로를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 편입시키는 경우 주민불편을 막기 위해 도로 옆으로 설치하는 도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마을주민들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 방음벽을 투명하게 설치하고 흙쌓기 구간 일부에 나무를 심어 녹지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대지마을 앞 도로의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도로폭을 확장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산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최우수상

광주 광산구가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광주·전남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시상금 2억원을 받았다. 이날 경진대회에서 광산구는 '마을에서 자치와 복지가 만난다'라는 주제로 주민자치회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구의 정책을 소개했다. 이날 행안부 평가에서 광산구는 행정혁신을 통해 생활자치와 돌봄 분야에 주민공동체 형성을 뒷받침하는 마을혁신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남구 무인 민원발급기 이용 건수 급증

광주 남구가 주민들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인 민원발급기 확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4년 사이에 무인 민원발급기의 이용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부 등본을 비롯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절감하고, 대다수 발급기에서 주말과 휴일을 통해 민원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 현재 남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 민원발급기는 총 7대다. 남구청 본관 1층에 2대를 비롯해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이마트 분점점과 롯데슈퍼 진월점, 기동병원에 각각 1대의 무인 민원발급기가 운영되고 있다. 효덕동주민센터 내 민원실과 노대동출장소 내 민원실에도 1대가 설치돼 있다. '민내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 현황(2015~2018년 11월 28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무인 민원발급기 이용률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 2만 5995건에서 2016년에는 3만 497건, 2017년 4만 2626건, 2018년 4만 5346건이었다. 이 가운데 올해 무인 민원발급기의 이용건수는 지난 2015년과 비교해 1만 9351건이 증가, 4년 전 대비 이용률이 42%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토닥토닥 청년일자리 카페' 1호점 내년 2월 개소

광주시는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 고민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청년 거점 공간으로 '토닥토닥 청년일자리(job)카페' 1호점을 내년 2월 개소한다. '토닥토닥 청년일자리(job)카페'는 서구 상무중앙로 34(치평동, 서광주농협 운전점 2층)에 도서공간, 카페공간, 스타디움, 컨퍼런스 공간 등을 갖춘 196.7㎡ 규모로 마련된다. 청년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소통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센터로 직무멘토링, 모의면접, 취업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취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010-2680-9685

세울터건축사사무소(주)